실전 창업 교육으로 시행착오 줄인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다음달 교육생 모집
유망 아이템 멘토링·매장 운영 체험…창업시 사업비 등 지원

#.대학생이던 김소우씨는 교양과목으로 창업 관련 강의를 들었다. 강의가 끝나고 강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추천받았다. 휴학을 한 김씨는 창업에 도전하기로 했다. 2년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었던 그는 디저트 메뉴에 주목했다. 그리고 직접 배워 만들며 지인들에게 평가를 받았다. 사관학교를 다니며 체험점포를 통해 고객 응대와 각종 문제에 대처하는 법을 체득했다. '실전'과 다름 없는 창업경험을 한 김씨는 사관학교 졸업 후 광주시 광산구에 디저트 카페 '유아시스'를 창업했다. 점포운영 경험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일이다.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20~30대는 물론, 은퇴 후 먹고 살길을 찾기 위해 창업에 뛰어드는 60대까지 맞물리면서 생계형 창업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갈수록 장사가 어려워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작정 가게를 차리는 등 준비 없는 창업은 '필패'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일자리 부족과 취약한 기업환경, 굵직한 대기업 부재 등 지역 특성 탓에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 준비 없는 창업으로 실패할 우려가 크다. 생계를 위해 창업에 나서기 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실전경험을 쌓으면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아이템을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이론교육부터 점포 체험, 멘토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곳이다.

소상공들의 창·폐업이 빈번한 생계형 업종 중에서도 과밀화되지 않은 업종 등이 대상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와 구조적인 실업,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이미 포화상태인 생계형 업종의 낮은 생존율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4주간 이론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창업교육과 전문교육, 분반교육 등 창업준비 및 점포운영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준다. 특히, 실제 점포를 운영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창업 전 사업경험을 해볼 수 있어 추후 창업시 실패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점포 운영체험 기간은 16주 상당으로, 점포를 운영해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도 지원해준다. 광주의 최고상권이자 번화가로 꼽히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체험점포 '꿈이룸'이 마련돼 있다. 유동인구가 많고 방문객도 많아 사업경험을 쌓기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또 모든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 중 사업화에 나설 경우 매장 리모델링,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홍보 및 마케팅 등 창업 소요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창업자들의 자금부담도 덜 수 있다.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업비 최대 2000만원, 자부담 50%다.

다가오는 2019년 1월께 9기 교육생 모집공고를 낼 예정으로, 3월께 기본교육을 마친 뒤 4월께 체험점포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창업을 염두하고 있을 경우 사업아이템 체계화 등 사전에 준비할 경우 보다 수월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교육신청은 교육생 모집공고 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조계헌 원장의

톡 톡 창업이야기

모두 관심 가져야 할 오너리스크

최근 뉴스에 모 프랜차이즈 본사대표의 갑질로 인해 비교적 잘 나가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어 전체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고 그로 인해 본사의 신용도가 덩달아 하락하여 마침내 상장폐지에 몰려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눈에 띈다. 갑질 사건으로 인해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고자 문제가 되었던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후속 조치들을 내놨지만 결국 해당 브랜드는 이미지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이렇듯 본사대표의 잘못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들이 늘자 일명 '호식이방지법' 또는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1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젠 프랜차이즈 본사대표의 잘못으로 인해 가맹점들이 매출타격을 받으면 본사가 이를 보상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라도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새롭게 가맹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너리스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연 오너리스크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들만의 리스크에 한정되어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자영업자들의 폐업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연간 100만명 가까이 생겨나다 보니 폐업의 이유야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오너리스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작은 점포를 운영하던 자영업자일 뿐인데 무슨 오너리스크까지 있겠냐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작은 개인 점포에서도 오너리스크는 존재한다.

그 중 가장 큰 오너리스크는 고객에 대한 불친절이다. 자신의 점포를 찾아온 고객들에게 친절하지 못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고객에 대한 갑질인 것이다. 만일 고객 중심의 마인드로 고객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을이라고 생각한다면 없는 미소라도 옆집에서 빌려다가 지어가며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오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너의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과 고압적인 운영방식을 쓰는 것도 오너리스크다. 직원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마음도 불편하고 예민해져서 고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경우는 1차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지만 2차적으로는 고객들이 그 피해의 대상이 되기에 고객들에 대한 우회적 갑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점포를 운영함에 있어서 게으름과 섬세하지 못함도 오너리스크다. 오너의 게으름은 점포의 위생이나 운영에 '독'이 되어 고객들을 실망시켜 발길을 되돌리게 하고 섬세하지 못한 서비스는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재방문을 막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역량강화와 매장이나 제품, 고객서비스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는 것도 오너리스크다. 대개의 창업자들은 역량이 부족하지만 일단 창업을 하고 본다. 하지만 창업 이후에라도 본인의 역량을 강화해서 운영해야 그 혜택이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돌아가고 변화의 필요성도 절감하여 고객들의 만족도를 위한 효과적인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렇듯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오너들은 고객들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오너마인드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언론재단 최신 뉴스 서비스 공개
11일 '뉴스스타트업 데모데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오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스타트업(신생기업), 투자자, 학계,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스타트업 데모데이 2018'을 개최한다.

언론재단은 이 행사에서 2018년에 인큐베이팅한 7개 뉴스서비스 분야 스타트업들의 최신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용자 맞춤형 음성 뉴스제공 서비스 '뉴스콜릭'를 비롯해 팬덤 기반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스타피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국내 미디어 번역 서비스 '루빅스 미디어', 개인투자자를 위한 투자정보 분석 서비스 '머니스테이션' 등이다.

직장인 여성을 위한 생활경제 정보 큐레이션 메일링 서비스 '어피티'와 AI스피커 대화형 콘텐츠 서비스 '왈이의 아침식땅', 한반도 외교이슈 전문 뉴스레터 서비스 '코리아 엑스포제'도 선보인다.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의 투자 유치를 위해 스타트업들이 데모를 시연하고,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초청해 '국민평가단' 방식의 현장 투표를 거쳐 우수 기업에 총상금 3500만원을 시상한다.

참가신청은 언론진흥재단 이벤트페이지(event-us.kr/venturesquare/event/4285)로 하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바이오·정보통신·전기전자 … 산학 협동 성과물 전시

6일 열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성과물 전시회에서 우수성과를 거둬 상을 수상한 지역 기업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광주전남청 제공〉

중소벤처부 오늘까지…광주 27개·전남 73개 과제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6일부터 7일까지 광주디자인센터에서 광주시·전남도와 공동 추진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성과물 전시회를 개최한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기부와 광역지자체가 매칭을 통해 기술개발자금을 조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산학연 유공자를 시상하고 지역 대학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개발한 신기술·신제품을 관계자 및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성과물 전시회로 진행된다.

성과물 전시는 지역대학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광주지역 27개 과제, 전남지역 73개의 과제 결과물을 전시한다. 바이오,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 화학,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로 지난 1년간의 산학협동의 성과물이 전시된다.

또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해 '지하 공간 발파 시 발생되는 환경유해 요인을 70%까지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한 ㈜고려시멘트(대표이사 이국노)는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난연 등급 및 단열성능 확보를 통해 신축주택의 냉·난방에너지를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단열재'를 개발한 ㈜제로하우스(대표이사 김웅찬)는 광주전남지방청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감미료 無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